

要人테러의 위기관리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velopment about Crisis Control Analyzes and the Realities of VIP Terrorism

서 상 열*

〈목 차〉

I. 서 론	IV. 요인테러의 위기관리를 위한 발전방향
II. 이론적 고찰	V. 결 론
III. 요인테러의 현황 및 위기관리 사례 분석	

〈요 약〉

오늘날 우리사회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그리고 테러리즘과 재해의 끊임없는 발생으로 국가적인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던 대규모의 재해관리 문제를 이제는 국가위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요인테러리즘 또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 안보 및 재해와 더불어 국가위기관리의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등 각국 지도자를 공격 대상으로 한 요인테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치명적인 테러 행위 발생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등 후유증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테러의 위기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첫째,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호관계법”과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경호의 기본원칙에 의한 경호안전활동의 강화조치로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제거 해야 한다, 셋째, 현장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극복능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넷째, 요인테러가 직접 위해 목적 뿐만 아니라 간접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경호기법을 개발하는 등 국가요인에 대한 암살 및 테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예방경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각종 테러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제어: 국가요인, 요인테러, 위기, 국가위기, 위기관리

*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21세기는 지식, 정보가 지배하는 정보화 시대로 오늘날 과학기술과 산업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오늘날 우리사회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그리고 테러리즘과 재해의 끊임없는 발생으로 국가적인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래까지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는 외침 또는 내란과 관련한 군사적 문제가 가장 큰 국가적인 위기였으며, 국가위기관리의 범위는 주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 안보” 분야에 치중되어 왔었다.

그러나 과학 기술문명이 고도화된 최근에 들어와서도 국가위기는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 테러리즘 및 재해 등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과거에는 자연재해나 인적재해가 국가위기의 문제로까지 취급되지는 못하였지만, 최근에는 재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러한 재해가 국가위기 상황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까지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던 대규모의 재해관리 즉 재난관리 문제를 이제는 국가위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요인테러리즘 또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 안보 및 재해와 더불어 국가위기관리의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요인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 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근래 국·내외적으로 요인에 대한 테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작년 5·31 지방선거시 국내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사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06. 5. 20)'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소영웅주의와 무차별적인 증오심리에 의한 계획적인 테러사건으로 최근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 측면에서 경호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현재 2건의 경호관계법¹⁾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아울러 금년은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며, 선거 유세기간 중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유세장의 불특정 다수의 군중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요인테러의 방법과 수법은 더욱 과학화, 고도화 되고 잔인해지고, 국제테러조직 및 각종 위협요인의 점증으로 국가요인에 대한

1) 한나라당 김정훈의원의 각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정당대표 등 주요 정치인까지 경찰 경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인경호법」 제정법안('06.6)과 열린우리당 강성중의원의 「대통령경호실법 개정」 법안.

직·간접적인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활동 및 위기관리에 대한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실정에 있다. 따라서 국가 정상이나 정부수반 등 각국 지도자를 공격 대상으로 한 요인²⁾테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치명적인 테러 행위 발생시 국가위기를 초래하는 등 후유증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 요인에 대한 경호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요인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을 때, 사회 혼란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³⁾ 국가요인에 대한 위해 및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요인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경호안전활동이 국가위기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위기관리의 측면에서 요인테러를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위협요인 분석 및 요인테러의 양상을 살펴보고, 국내·외 요인테러 사례분석을 통하여 위기관리에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위기와 위기관리의 의의

1) 위기의 개념 및 종류

현대는 위기관리(emergency management)의 시대라 할 만큼 ‘위기’ 라는 용어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상적인 단어가 되었으며 정치적위기, 경제적위기, 사회적위기, 문화적위기, 군사적위기, 국제적위기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정도와

2) 요인(要人)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7, p.1530), 세계 주요국가의 요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는 요인(Principal)을 “신변보호가 제공되는 인사”로 정의하고, 일본의 요인경호대(Security Police)는 요인을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 공공안녕 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로 정의하며, UN의 협정문은 요인(국제적 보호인물)을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발생시 국제관계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영무, 테러리즘과 저항권, 나남출판사, 1989, p.13). 현대사회에서 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그 자신이 소속된 사회 각 분야에서 세인의 주목을 받고 주어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요인을 국가원수 또는 그에 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자와 3부요인 및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정치지도자로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국가적인 차원의 신변보호를 제공 받는자를 요인으로 한정한다.

3)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암살사건’과 미국의 경우 1963년 11월 22일 ‘J. F. Kennedy대통령 암살사건’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2004년 5월 9일 ‘카디로프 체첸대통령 폭탄테러 암살사건’과 2004년 3월 19일 ‘천수이벤 대만총통 총기피격사건’이 있다.

규모에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위기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조직이 위기 안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위기’라는 단어는 원래 의학용어로 crisis라 하여 의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회복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되거나 회복불능의 상태에 진입하는 전환점(a turning point)을 지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위기의 정의는 심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여 즉각적인 대처행동이 요구되는 아슬아슬한 상황, 또는 어떤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사태악화로 인해 파국이나 종언으로 치닫게 되려는 결정적인 국면전환의 고비를 말한다. 즉, 위기란 시간적 급박함과 상황적 위태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중대한 전환기적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Richard G. Head et al, 1978, 4). 그리고 미국의 헤리티지 영어사전에 의하면 위기(crisis)란 ①어떤 사건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시기 혹은 상황, ②전환점, ③불안정한 상황, ④갑작스런 변화, ⑤저항의 긴장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⁴⁾ 또한 위기(crisis)란 사전상의 정의에 따르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위험 또는 문제에 당면한 시기를 말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상황을 뜻하는 비상사태(emergency)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이윤임, 1991: 11). 위기(crisis)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의적 정의가 있을 수 있다. 위기는 위험(risk, danger), 재난(disaster)⁵⁾, 재해(hazard), 위협(threat), 사건(incident), 사고(accident), 재앙(calamity, catastrophe), 우발상황(contingency), 비상사태(emergency) 등의 유사개념을 내포하는 용어이다. 위기의 종류는 위기발생 체계별로 즉, 정치체계, 경제·기술체계, 사회·문화체계, 자연체계의 네 가지로 구분하며 이러한 발생체계별 위기 분류와는 달리 위기유형은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즉 자연재난(natural disaster)과 인위재난(man-made disaster)으로 구별되고 있다(이재은, 2000: 60-63).

2) 위기관리의 의미 및 효율적인 경호적 적용 모델

일반적으로 ‘위기관리’라고 하면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하며, 위기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위기발생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나 조직의 위기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므로 모든 사례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모델을 수립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인 정책집행과정을 위기관리과정으로 전환시켜 설명한 petac(1985)의 단계론적 위기관리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etac, 1985: 45). “Petac“은 위기관리를 예방(mitigation), 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회복(recovery)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단계인 예방의 단계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촉발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위기

4)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992 Houghton Mifflin Company.

5) 재난과 재해는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재난이 ‘뜻밖에 발생한 불행한 일’을 의미하는데 비해, 재해는 재난이나 재앙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의미한다.

요인이 가급적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2단계는 준비단계로서 위기가 발생되기 전에 비상계획, 위기 경고체계 및 기타 방지노단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제3단계는 대응단계로서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과정이다.

제4단계는 회복단계로서의 위기가 지나간 뒤에 원상으로 복구되는 과정이다. 위기관리 모델은 하나의 제안서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위기관리모델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 놓았다면 기업이나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etak”의 위기관리 4단계에 의한 효율적인 경호적(경호안전활동단계) 적용 모델을 살펴보면, 1단계 예방단계는 예방경호활동단계로 정보활동단계, 보안활동단계, 안전대책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2단계 준비단계는 경호안전활동단계, 3단계 대응단계는 경호행사 실시단계, 4단계 회복단계는 행사종료후로 각각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표 2-1〉 “Petak”의 위기관리 4단계에 의한 효율적인 경호적 적용모델

(경호안전활동단계)

“Petak”의 위기관리 4단계		효율적인 경호안전활동 단계		
1단계	예방단계 (Mitigation)	예방경호 활동단계	정보활동 단계	- 요인의 신변안전을 위한 경호계획수립에 필수적인 사전 지식이며, 제반 경호활동의 기본 - 직·간접적인 위해행위 계획을 사전에 수집대책 강구(테러, 저격, 암살음모, 위해물 투척 및 매설계획, 방문저지, 시위, 농성 등) - 경호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 인물에 관한 신원정보, 행사지역내 인적·물적·지리적 경호위해요소에 관한 정·첩보의 제반사항 수집
			보안활동 단계	- 수집된정·첩보분석및경호취약요소(행사 보안, 인원, 장비, 시설, 통신, 지역보안 등)에 대한보안대책 강구 - 핵심정보의 탐지를 차단하기 위한 제반활동
			안전대책 단계	- 예견된 위해요소의 예방조치 및 우발사태 대비 행사지역의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2단계	준비단계 (Preparedness)	경호안전 활동단계	- 1단계 분석에 따른 예방책 마련 - 현장답사 및 예행연습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대책을 강구 - 가능한 실제 및 비상상황을 가상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훈련실시	
3단계	대응단계 (Response)	경호행사 실시단계	- 책임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예측 및 조기경보체제유지 - 상황발생시 즉각대응조치 강구	
4단계	회복단계 (Recovery)	행사종료후	- 평가 및 결과분석을 통해 발전방안 강구 - 문제점, 개선, 보완대책 강구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2. 국가위기관리와 경호안전활동과의 관계

위기관리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안전활동의 경호적 측면이 위기관리체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983년 10월 9일 발생한 버마(현 미얀마) 랭군 ‘아웅산묘소 폭탄 테러사건’은 일촉즉발의 전쟁발발 직전까지 가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언제든지 국가위기의 최악의 시나리오인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관리와 전쟁지도를 동일선상에 동시에 발전시키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국가최고의 의사결정권자 즉, 국가원수, 국무총리(수상) 등은 당연히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국가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경호안전활동은 미 9·11테러사건 직후 미국의 S.S(비밀경호대)가 미국대통령과 부통령을 분리하는 등 국가요인의 절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돈보이는 사례로 국가위기발생시 효율적인 요인경호활동의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요인은 국가위기 발생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국가요인 경호가 평시의 안전도 절대적이지만 국가위기 발생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국가위기관리와 요인경호와의 관계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의 안위를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의 주요 인사를 테러와 암살, 폭력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기관은 공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용되고 있으며, 그 경호조직이 독립기관이거나, 경찰, 군 또는 혼성으로 편성된 조직체에서 기관의 장을 두고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요인의 절대 안전을 위한 경호안전활동은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호안전활동이 미흡하여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적인 위협에 처해지고, 사회 혼란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후유증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홍성열, 2000: 202)⁶⁾.

6) 국가적으로 큰 손실과 사회혼란 발생 및 전쟁 상황 직전까지 간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124군 부대 소속 무장공비(김신조의 30명) 청와대 기습사건, 1974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 암살 미수사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암살사건, 1983년 10월 9일 버마(현 미얀마) 랭군 아웅산묘소 폭탄 테러사건 등.

Ⅲ. 요인테러의 현황 및 위기관리 사례분석

1. 요인테러의 배경

1) 요인테러에 대한 위협요인의 분석

(1) 북한의 위협

우리나라가 테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 1954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이 표적이 된 사건은 해외 50건을 포함하여 총 592건⁷⁾으로, 그 중 북한에 의한 테러가 전체의 92%인 542건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원수에 대한 위해기도사건⁸⁾도 7건이나 발생하는 등 테러의 대부분은 북한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북한은 국·내외 경호환경 및 위협요인 진단에 있어 최우선적 고려 대상이며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가장 위험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적화전전략을 고수하는 한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가능성 중에서 가능성도 가장 높고, 위협정도에 있어서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김창순, 1996).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테러활동을 주도하고 지원하였다는 이유에서 미국정부에 의해 1988년 이후 현재까지 테러지원국⁹⁾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욱이 북한은 현대적 테러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화생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다량 생산,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핵무기 개발을 성공하는 등 대량살상무기의 제1의 확산 위협국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북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하고도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사건들이 있었으며, 그러기에 한국은 최근 남북한 화해분위기에 불구하고 북한의 각종 선언을 신뢰하기에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한 예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도 당 간부들에게 ‘한국·미국·일본 등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기 위해 내미는 평화제안을 절대 믿지 말라’¹⁰⁾고 역설할 정도로 언행에 대한 이중성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7) 국가정보원, 「2002년도 테러정세」, 31~38면 : 선박납치(470건), 민간인 납치·살해(69건), 폭파(14건), 무장공격(12건), 대통령위해기도(7건), 항공기납치(9건), 기타(7건).

8) 북한 124군 부대(무장간첩 31명) 청와대 기습사건(68.1.21),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70.6.22), 경희루 석교 폭파기도사건(74.8.13), 박대통령 저격미수사건(74.8.15), 전두환대통령 암살미수사건(해외순방중 위해기도/81.7), 전두환대통령 가봉공화국 방문시 암살기도(추진중단/82.8), 버마 아웅산묘소 폭파사건(83.10.9).

9) 미 국무부는 2007년 4월 30일 발표한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 5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했다.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성은 정전 이래 그들의 적화통일에 대한 목표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아울러 대남 국가요인 테러리즘 위협 또한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크나큰 근거가 될 수 있다.

(2)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

우리나라는 이라크 파병 당사국으로서 이슬람 과격단체로부터 테러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테러 조직인 '알 카에다' 등이 지난 1994년 이후 한국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테러를 계획하는 등 국제 테러단체로부터의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04년 6월 이라크 추가파병 이후인 10월에는 '알카에다'가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과 더불어 공격대상으로 지목하여 최근에는 아랍어 웹 사이트에 한국군의 이라크 철군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심리전의 표적이 되고 있어 테러 동조세력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국정원, 2005). 또한 러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수민족 분리독립, 이슬람 원리주의, 좌익 반군단체들이 국제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요인에 대한 테러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화 시대에 자국의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요인은 다자간 국제회의에 빈번히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이목이 집중된 국제회의장 및 기타 장소에서 요인에 대한 테러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요인에 대한 위해사례는 '07. 3. 22 '알카에다'와 관련된 조직으로 알려진 '이라크 이슬람국가'라는 테러조직이 이라크 바그다드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기자회견장에 로켓포 공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는바와 같이 '알카에다'조직과 연계된 테러단체에 의해 요인테러를 자행하거나 지역내 세력확보를 위한 반정부 테러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2) 요인테러의 현황 및 국제테러의 동향

(1) 요인테러의 현황

최근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가요인에 대한 테러리즘은 2001년 9·11테러 및 이라크전 이후 “알카에다”를 비롯한 국제 유력 이슬람 테러단체들의 자살폭탄테러 등 각종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암살미수사건(02. 7), 세르비아 “진지치” 총리 총격암살사건(03. 3), 체첸 “카디로프” 대통령 폭탄 테러 암살사건(04. 5) 등 총 50여건의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등 국가요인에 대한 테러 위협은 고조되고 있다.

요인테러의 유형을 살펴보면, 총기류에 의한 저격, 폭탄테러, 독극물, 화생방 테러, 항

10) 「조선일보」, 2001, 5, 4.

공기 테러, 인질, 방화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그 중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총기류에 의한 저격과 폭탄테러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총기류에 의한 저격은 요인테러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이는 특정인 만을 목표로 하여 일반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지난 1981년 3월 30일 정신질환자인 범인 '힌클리'가 쓴 총탄에 부상을 당한 '레이건' 대통령 암살기도사건과 2004년 3월 19일 대만총통 선거를 하루 앞두고 발생한 '천수이벤'총통이 유세 중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부상당한 사건 등 대부분의 암살기도사건은 정치적 이유와 개인적 원한관계, 공격성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사용하여 왔던 방법이다. 이는 위해장비의 획득이 비교적 용이하고 우발적 동기에 의해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러시아 등 동남아에서 밀반입되는 불법총기류와 경찰, 군부대 등에서 유출된 총기류, 사제총기 등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불법총기 문제는 경호상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총기류에 의한 저격과 더불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폭탄 공격은 1983년 10월 9일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파사건과 2004년 5월 9일 발생한 체첸 '카디르프' 대통령 폭탄테러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현대의 폭탄테러는 폭파기술의 발달과 원격조정장치의 개발로 가공할 만한 성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플라스틱 폭탄(Semtex)이 개발되어 금속탐지기로는 사전 발견이 어려운 등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더욱 어려워지며, 특히 폭탄테러는 증거인멸 및 범행 후 도주가 용이하다는 점과 대규모 시설 및 인명 피해를 동반하므로 공포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등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테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독극물 및 화생방 테러이다. 1978년 9월 영국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구 소련 KGB의 사주를 받은 범인이 우산에 리신(Ricin)¹¹⁾을 묻혀 불가리아 반체제 인사인 'Georgiy Markov'를 찔러 4일만에 사망케한 사건과 1995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린가스 살포사건은 일본 종교집단인 오진리교 신도들이 도쿄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많은 사상자(12명 사망, 5,000여명 중독)가 발생하였으며, 2001년 9·11테러사건 직후 미국 전역에는 탄저균 우편물을 발송하여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감염됨으로써 전 세계가 탄저균테러 공포에 휩싸인 적인 있었다. 또한 최근에 미국 '빌프리스트' 상원의원 우편보관실에 독성물질인 '리신(Ricin)이 든 우편물이 배달되었으며, 지난 2003년 11월 백악관에도 이와 같은 독극물이 배달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독극물 위해는 준비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테러가 용이하며 범행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폭발물이나 총기에 의한 위해사건 보다도 치명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조치는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테러 양상은 독가스나 생물무기, 화학무기 등에 의한 무차별적이고 치명적인 테러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요인경호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등

11) 리신(Ricin)은 피마자유에 들어있는 유독성 알부민으로 적혈구 응집작용이 있어 인체 노출시 치명적임.

장할 가능성이 있다.

(2) 국제테러의 동향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 공격 후 발생한 뉴욕의 탄저균 테러는 항공기 테러와 함께 대량살상을 동반하는 21세기의 새로운 테러리즘 탄생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후 세계 각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자폭테러 등은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9·11테러 이후 국제 테러환경 변화를 분석해 보면 '빈라덴'과 그의 추종세력인 '알카에다' 테러집단은 점점 지하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첨단과학 무기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2004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NATO정상회담 시 대규모 폭탄테러 기도, 스페인 열차 폭탄테러 등과 같이 세계 도처에서 원격자동 폭파장치 이용이나 차량 등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알카에다'에 의한 독가스 및 생화학 무기, 핵무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테러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는 테러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과 정신적 공황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등 바야흐로 테러와의 전쟁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¹²⁾.

한편 경호측면에서도 9.11테러 시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미국대통령이 상주하고 있는 워싱턴 백악관 방향으로 기수를 돌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전 세계가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문제는 최근의 자살폭탄테러 양상이 점차 이슬람과 기독교간의 종교적 대립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 CIA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9·11테러도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 집단을 위시한 하마스, 이스라엘 지하드, 헤즈볼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등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미국을 주적'으로 삼는 '알카에다' 추종 국제테러 조직만도 10여개¹³⁾에 이르며 '알카에다'가 주축하더라도 연계조직들 때문에 테러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들 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중동의 아랍 정치지도자들도 지하드(성전)을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 왔다. 이러한 예의 전형적인 실천유형으로 요인암살, 차량폭탄테러, 항공기납치 자살폭탄테러 등을 택하고 있으며 종교적 광신도나 희생자 가족 등의 복수심을 교묘히 자극, 세뇌시킴으로써 자살테러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이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정치테러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

12) 「Washington Post」, 2002년 1월 11일자, 영국 「Janes Intelligence Review」, 2002년 1월호 : '알카에다'의 다음 테러대상은 한국과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이라크 추가 전투병 파병으로 테러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고 보도.

13) 「동아일보」, 2004년 3월 17일자, "알 자카위가 이끄는 헤라트그룹, 이집트 이슬람 지하드그룹, 안사르 알 이슬람, 리비아 이슬람 전투그룹,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 아부사이아프그룹 등이 있다"고 보도.

이다(안중하, 2004: 10).

2. 국내 요인테러의 위기관리 사례

1)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파사건

(1) 사건개요

1983년 10월 9일 10시 27분(한국시간 12시 57분)에 버마(現 미얀마)의 수도 랑군시에 위치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북괴의 특수공작조 3명이 한국 대통령 위해를 목적으로 묘지 천장에 설치한 크레모아형 폭탄 2개와 소이탄 1개 중, 크레모아 폭탄 1개가 범인들의 원격조정에 의해 폭발하여 사전 대기 중이던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공식·비공식 수행원 17명이 순직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전대통령이 서남아 3개국(버마, 인도, 스리랑카)과 대양주 2개국(호주, 뉴질랜드) 및 브루나이 공식순방 일정의 첫 방문지인 버마에 10월 8일 도착하여 1박을 한 후, 이틀째인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아웅산 묘지를 현화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버마 외상의 지연도착으로 영빈관을 늦게 출발(10시 24분)한 대통령 일행은 행사장 도착 2.5Km 전방에 이르렀을 때, 폭발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기동하다가 행사장 전방 약 1Km 지점에서 영빈관으로 회차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2) 위기관리의 실태

① 폭발후 현장 위기관리

본대 도착 2~3분전 폭발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아웅산 묘소에서 현장지휘를 하던 경호책임자는 무전으로 본대 회차를 지시하였다(당시 대통령일행이 탄 차량대형은 행사장 전방 1Km 지점에서 폭발상황을 인지하고 영빈관으로 회차하였음).

그리고 현장에 있던 경호요원들은 사태수습을 위해 몇명이 현장에 잔류하고 기타 요원들은 신속하게 영빈관으로 철수하였다. 폭발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경호원들은 버마측과 함께 공식·비공식수행원 및 보도요원, 경호원 등 사상자 확인과 더불어 사고 현장보존과 부상자 후송 조치, 사망 및 부상 수행원·경호원의 장비 및 보안서류 회수, 희생자 보안조치 등 버마 수사기관 및 한국측 관계자 도착시까지 현장확보 조치와 더불어 아웅산 묘소 주변경계를 강화하도록 협조하였다. 위기를 모면하고 영빈관으로 돌아온 대통령은 2차 공격을 우려해 대통령 숙소로 가지 않고 수행원 숙소(의전실장)로 이동하여 대통령의 위치를 은폐시켰으며, 한국 경호원들은 버마 경호원들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판단, 버마측 요원들을 모두 밖으로 쫓았다.

경호는 초청국이 완전 책임지는 것이 국제관례이나, 관례나 규정 같은 것을 따질 겨를

이 없었다. 영빈관은 완전히 한국 경호원들에 의해 장악됐으며, 버마인들이 다 나간 다음 대통령내외는 다시 영빈관 2층으로 옮겼다. 이때부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하에서 한국 경호원들은 2차 공격에 대비, 전투태세에 들어갔다(박창석, 1993: 83). 아울러 신속한 귀국을 위한 특별기 이륙준비 및 경계를 강화하는 등 제반 위기관리를 실시하였다.

② 폭발사건 후 한국에서의 위기관리

폭발사건 후 국내에서의 위기관리는 다음과 같다(박창석, 1993: 94-96). “우리나라 외무부에 아웅산 폭발사건의 개황을 알리는 제1보가 도착한 것은 9일 오후 1시 10분께였다. 사건이 일어난 지 15분쯤 후였다. 외신을 통해 전해진 급보는 정확하게 상황과악이 안된 듯(미얀마에서 경호상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비상대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사건발생과 동시에 정확한 상황을 타전할 수 있었던 국가안전기획부와는 달리, 외무부 계통에서 현장을 지휘해야 할 이계철 대사가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외신관으로 부터 사건발생의 급보를 수신한 외무부는 후속 상보를 기다리는 한편 외무부 직원들을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불러모았다. 노재원 차관의 주재로 열린 비상간부회의는 이상옥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편성하고 전 해외공관에 사건발생을 긴급 타전하는 한편 비상근무를 훈령했다. 국내적으로는 전군에 비상경계령이 내리고 주한미군에도 비상경계령인 데프콘(Defcon)이 발령됐다. 비상국무회의는 오후3시에 열렸으며 비상국무회의에서는 정부성명 발표, 시신처리 및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 파견, 진상조사단 파견 등이 결정되었다.

(3) 위기의 대응과 문제점

아웅산 폭발사건은 6·25전쟁 이후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사건이며 세계사에 있어서도 전무후무한 끔찍한 사건이다. 1983년 당시 정부는 비동맹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외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환으로 “국화작전”(대통령의 서남아시아-대양주 방문계획의 암호명)이 수립, 시행되어 버마(현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정보기관과 경호기관에서는 버마 방문이 대통령의 경호안전에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대통령 방문 한 달 전에 랭군항에 북한 공작선 ‘동건애국호’가 정박하여 활동을 개시하는 등 북한 선박의 랭군 정박과 관련해서 버마 방문을 취소하는 건의를 정보기관으로부터 건의를 받고도 방문을 강행하게 되었다. 위기의 대응과 문제점으로 버마 현지와 국내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현지에서는 크게 정보활동의 실패와 사전 선발활동의 미흡이다. 정보분석은 모든 부문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대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파견된 정보요원의 활동이 미흡했으며, 또한 적극적인 경호활동보다 버마측 경호조치를 맹신하는 등 소극적인 경호활동을 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위기의 대응과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 유고 시 승계 1순위이며, 대통령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신변안전을 위한 경호조치(평상시 경찰청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있음)를 국가경호 전문기관인 대통령경호실에서 별도의 경호안전활동이 취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사례로 살펴보면 미 9·11테러 사건 직후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과 부통령을 분리하여 절대안전을 보장하는 등 국가위기 발생 시 효율적인 요인경호시스템의 활동은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폭발사건 이후 6시간 동안의 제2의 공격이 예상되는 불안한 상황과 버마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시간 약 6시간을 포함한 약 12시간은 국가위기관리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무총리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준비하거나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

(1) 사건개요

1974년 8월 15일 10시 23분 경,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제29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일본 여권을 소지한 조총련 행동대장인 제일교포 2세 문세광(당시 23세)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제 3.8구경 권총(5연발) '스미스 앤드 웨슨'으로 박정희 대통령 저격을 기도하였으나 연설대를 맞고 실패하자 단상에 앉아있던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여, 육 여사 우측 두부를 관통시켜 절명케한 사건.

(2) 위기관리의 실태

범인 문세광은 검은색 대형 외제승용차(포드)을 타고 고위층 행세를 하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정문을 통과하여, 일본대사 일행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로비를 배회하면서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 기회를 노렸지만, 경호활동(정문 및 로비) 중인 경호요원 누구하나 아무런 경호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의구심 또한 갖지않는 등 위기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로비에서 저격이 여의치 않아 내부에 입장한 범인은 공식으로 있던 맨 뒤 우측에서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약 14분이 지난후 저격을 결심하고 옆구리 밑에 둔 권총을 빼기 쉽게 배밑으로 옮기는 순간 공이치기를 뒤로 미리 쥔 권총을 잘못 건드려, 오발 후 순간 놀라 자리를 박차고 통로로 나와 연단을 향해 뛰어가면서 권총사격(4발)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범인 문세광의 좌석 및 통로 주변 근무자와 단상 주변 근무자(경호실, 경찰지원요원)들은 긴급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감과 위기의식이 결여된 안이한 자세로 임하는 등 위기관리에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3) 위기의 대응과 문제점

범인 문세광이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 통로로 나와, 사격하면서 20여m를 이동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근무자들은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위기대응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당시 국립극장내에는 경호임무수행(경호원과 경찰지원요원)을 위해 60여명의 근무자가 단상 및 좌석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신속하고도 적절한 위기관리를 하지 못하였다.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최초 총성 발생 시 범인 좌석 주변 근무자 및 단상 근무자의 적극적인 통로 차단 및 제압 그리고 경호대상자를 신속히 방호하는 등 위기발생 초기에 범행의지를 무력화하는 위기대응 조치가 있었다면 육영수여사의 희생은 막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평소 위기관리에 대한 의식 부족과 그에 따른 대응조치훈련 및 경호기법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

(1) 사건개요

2006년 5월 20일 19:15경 서울시장 후보(오세훈)를 지원하기 위해, 신촌 현대백화점 광장 앞 유세장소에 도착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가 유세차량에 오르던 중 범인 지충호(당시50세)가 휘두른 문구용 칼에 얼굴 우측 귀 밑에서부터 턱까지 약 11cm의 자상을 당해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약 60바늘을 꿰맨 사건.

(2) 위기관리의 실태

범인 지충호는 위해의 최초대상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였지만 접근하기가 여의치 않아 현장에서 박근혜대표를 위해 대상으로 바꾸었고, 범인 지충호는 현장에 3시간 전에 도착하여 현장답사 및 주변을 배회하면서 준비를 하였다. 예정보다 20분 늦게 도착한 박근혜대표는 차를 돌릴 시간이 없어 길 건너편에 내려, 유세차까지 100여m를 걸어왔으며 군중들이 몰려 악수, 인사를 하느라 5분가량 소요되었다. 당시 박대표 경호는 사설 경호원 3명이 수행경호를 하였으며, 유세차 부근에 도착하면 뒤로 빠지는 등 근접경호 활동의 기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착경호(박근혜대표의 이미지 관리상)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위기관리 실패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리고 위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하였으며 또한 병원 응급실 현관으로 차를 대지 못하고 병원 뒤쪽으로 도착하는 등 사고 현장에서 응급실까지 가까운 거리인데도 20여분이 걸리는 등 위기관리에 큰 문제점 발생

(3) 위기의 대응과 문제점

위기 대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치인들의 경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속에 대한 거부감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과의 접촉 시 언론매체를 통해 경호를 받고 있는 모습이 비칠 경우의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 적극적인 경호를 허용하지 않는 등 신변안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최측에서는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호안전에 대한 위기의식 부족과 그에 따른 준비 소홀에 있으며, 아울러 수행경호요원들은 현장에서의 밀착경호 제한에 따른 차선책을 준비하는 경호 기법의 활용과 적극적이고 집중력있는 사주경계 등 경호안전활동이 요구된다. 범죄에 있어서 특정한 표적(대상)의 상징성이 클수록 범죄자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상징성이 큰 대상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범인 지층호는 이용하려 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테러사례를 살펴보면, 정원식 전총리 봉변사건(1991년 6월 4일, 한국외대 교내), 김수환추기경 폭행사건(1994년 4월 3일 명동성당 내), 김종필총리 감금사건(1999년 5월 9일, 충남대 교내), 김영삼 전대통령 계란페인트 투척사건(1999년 6월 3일, 김포공항 귀빈주차장) 등이 있다. (〈표 3-1〉 참조)

〈표 3-1〉 국내 주요 요인테러 사례 현황

발생일자	사 건 개 요	테러형태	장 소
46. 9. 12	이승만 박사 암살 미수	권총저격	연 도(창경궁앞)
48. 10.18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원격폭파	연 도(효자동)
68. 1. 21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무장공비습격	청와대
70. 6. 22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폭파기도	국립묘지(현충문)
74. 8. 13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폭파기도	경희루 석교
74. 8. 15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육영수 여사 피격)	권총저격	국립극장
81. 1~ 82. 2	전두환 대통령 암살 미수	사전체포	필리핀
83. 10. 9	전두환 대통령 암살 미수 (사망 17, 부상 14)	원격폭파	버마 (아용산묘소)
84. 5. 6	요한 바오르2세 저격미수사건	장난감권총(위협)	중앙극장 앞 도로
91. 6. 4	정원식 전총리 봉변사건	달걀·밀가루투척 (집단폭력/위협)	한국외대 교내
94. 4. 3	김수환추기경 폭행사건	폭력	명동성당
99. 5. 9	김종필총리 감금사건	집단위협	충남대 교내
99. 6. 3	김영삼 전대통령 계란페인트 투척사건	계란페인트 투척	김포공항 2청사 귀빈주차장
'00. 3. 8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계란 봉변사건	계란투척	청주, 지구당 개편대회장
'06. 5. 20	박근혜 전한나라당대표 피습사건	커트칼(문구용칼)	신촌 현대백화점 앞 광장

3. 국외 요인테러의 위기관리 사례

1) 이스라엘 '라빈'수상 암살사건

(1) 사건개요

1995년 11월 4일(토) 22:00경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텔아비브에서 열린 '라빈 수상의 중동평화 정착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시청 계단을 내려와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25세)'가 약 2~3m에서 베레타 9밀리 권총으로 저격하여 1발이 라빈총리 등에 명중되었으며, 2발은 총리 뒤에서 수행하던 경호원(루빈, 30세)이 총성 직후 총리를 차안에 밀어 넣는 순간 어깨부분에 맞았고, 수상은 곧바로 텔아비브 이칠로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피격 1시간만에 사망한 사건.

(2) 위기관리의 실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회담을 반대하는 강경 우익세력들이 총리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반대를 노골화하였으며, 또한 일부 지하단체에서는 라빈 암살만이 평화협정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라빈수상의 암살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등 요인에 대한 위협상황이 지속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경호기관들이 라빈수상에 대한 암살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가 있었으나 국가경호기관인 요인경호대는 이를 무시하는 등 사전안전조치 즉 예방경호활동을 소홀히하여 국가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하는 위기를 초래하는 등 사전에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건 발생 직후 보여준 신속한 현장이탈 및 구급병원 후송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하는 등 근접 경호요원들이 경호활동간 위기관리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중요한 비상대책에도 허술하였다.

(3) 위기의 대응과 문제점

위기의 대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먼저 정·첩보 활동의 부재 및 안이한 대응으로 라빈수상이 이스라엘 정착촌을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및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극우세력으로부터 강한 폭력시위와 라빈 암살설이 떠돌았으나 특별히 경호안전활동을 강화하지 않는 등 정보망에 큰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리고 요인이 활동하는 경호안전 공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유동인원에 대한 관리는 검문검색을 통하는 등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에 의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출입할 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고 특히, 본대 모터케이트 주변까지 아무런 제지없이 출입하여 암살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경호안전활동에 큰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암살미수사건

(1) 사건개요

2002년 7월 14일(일) 10:00경 '시라크'대통령이 프랑스대혁명 기념일 파리 시내에서 군 사퍼레이드를 위해 무개 지프를 타고 샹젤리제 대로를 지날때, 150m 떨어진 군중 속에 섞여 있던 범인 '막심 브뤼느리(25세)'가 기타가방에서 22구경 소총을 꺼내 한 발을 발사 하였으나 빗나갔으며, 주변에 있던 시민과 경찰에 의해 저지, 체포된 사건.

(2) 위기관리의 실태

정권에 대한 불만세력이 팽배해 지면 어떤 형태로든 요인 위해사건이 발생된다는 것을 과거의 여러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당시 중도우파의 압도적 총선 승리 등 프랑스 정국 및 현정권에 불만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와 범인 '막심 브뤼느리(25세)'는 대학생으로 극우파 '스킨헤드족' 무장단체 소속의 일원이며, 나치단체 시위주도로 체포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극우파 동료들에게 수시로 대통령암살 희망의사를 피력하였고 범행 전날 영국의 신나치단체 홈페이지에 암살을 알리는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사전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대통령을 저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위기관리는 경호위해 인물에 대한 관리 소홀과 경호 취약요소에 대한 위험도 분석 등 위기대응에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에게까지 공지된 국가적인 대규모 행사로써 모든 국가기관이 위기관리를 위하여 정·첩보망을 동원하여 불순 조직체의 동향까지 사전에 파악하여 행사전부터 행사종료 시 까지 추적 관리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안전에 대한 주체 기관인 '요인경호실'과 행사지역 관할서인 파리 경찰청이 위기관리대책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다소 소홀했음을 알 수 있다

(3) 위기의 대응과 문제점

'Petak' 의 단계론적 위기관리 모형에서 살펴보면(〈표2-1〉참조), 위기관리에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전에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단계이다. 예방 단계는 위기에 의한 손실을 제거하거나 위기의 발생확률을 낮추는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되며, 위기관리의 최초 단계로서 위기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였지만, 이 사건은 경호안전활동 중 가장 중요한 사전 예방경호 활동인 정·첩보활동의 미흡과 경호공간내에서의 특이인물에 대한 검문검색 등 사찰활동 및 경호취약 요소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위기대응에 소홀했으며, 그리고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과정인 대응단계의 오류인 긴급사태 발생 시 현장이탈이라는 경호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제2의 위해기도에 대한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였다.

IV. 요인테러의 위기관리를 위한 발전 방향

1. 요인테러리즘 정책의 법적·제도적 보완대책 강구

오늘날 국가와 현대사회는 개방화, 국제화 그리고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복잡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각종 위기 발생 가능성의 증대는 물론 위기관리 요인의 다양화, 위기로 인한 피해의 대규모화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위기관리 영역 중 국가핵심기반의 위기인 테러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는 단 한번의 위기발생으로 국가와 사회혼란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근 국제적인 테러의 급증과 사회적인 각종 병리현상의 문제로 정치지도자 등 사회 주요인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요인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은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요인테러리즘에 대한 정책이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테러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흉포화되는 현실에 대해 대통령선거후보자 및 정당대표자 등 국가주요 요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며,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을 계기로 대선후보자 및 정당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을 위해 경호를 강화하자는 여론에 힘입어 김정훈의원(한나라당)이 요인경호법안을 발의(2006. 11.28)하였고, 이어 강성종의원(열린우리당)이 대통령경호실법 개정 법안¹⁴⁾을 발의하는 등 2건의 경호관계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 유고시 승계 1순위인 국무총리를 비롯한 3부요인¹⁵⁾에 대한 신변안전의 보호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를 일원화함으로써 경호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국가 주요인사의 자유로운 정치

14) 이 법안 주요내용은 ①국회의장 또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를 선거일 전 120일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호의 2 신설), ②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호기관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 경찰청 훈련에 근거하여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경호실에서 담당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의 3 신설) 등이다.

15) 현재 3부요인에 대한 경호경비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 훈련인 「경호규칙」 제3조(경호의 대상)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요인(을호)에 대하여 경호를 실시하고 있는 바, ①국회의장 수행경호 및 의장공관경비, ②대법원장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 ③헌법재판소장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 ④국무총리 수행경호 및 공관경비 등의 경호경비 직무 수행.

활동을 보장하여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 국가경호전문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자 국정원은 최근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47호)을 개정하여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테러정보 통합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05. 4. 1)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테러로부터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對테러 관련 법규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보완하고 전담기구와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호관계법”과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기본원칙에 의한 경호안전활동 강화

상기 위해사례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의 실패는 경호의 기본원칙¹⁶⁾을 소홀히 했거나, 미흡한 대응으로 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경호는 한순간에 끝나며, 단 한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국가원수에 대한 위기관리 실패는 심각한 국가 및 사회혼란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는 경호의 기본원칙에 의한 경호안전활동¹⁷⁾을 하여야 한다. 경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예방활동 즉 사전안전조치와 긴급사태 발생시 즉각대응조치에 있으며, 경호의 모든 행위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경호활동은 경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Petak”의 위기관리 4단계에 의한 효율적인 경호적 적용 모델(경호안전활동단계)에서 살펴보면(〈표2-1〉), 예방경호 활동단계에는 정보활동단계, 보안활동단계, 안전대책 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첫째, 정보활동단계로 경호정보는 요인의 신변안전을 위한 위기관리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것이며, 제반 경호안전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보안활동단계는 수집된 정·첩보를 통해 경호취약요소를 분석하여 경호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요소(행사보안, 인원, 장비, 시설, 통신, 지역보안 등)에 대하여 보안누설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안전대책단계는 발생 가능한 제반 위기사태를 가정

16) 경호의 원칙이라는 말은 「일반의 경우에 또는 많은 경우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정의한다. 경호의 원칙을 논할 때는 경호대상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호환경의 다양성 때문에 “A는 B다”라는 등식처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나 경호의 활동에 있어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17) 경호안전활동이란 실제적이고도 주도면밀하게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 무력화시키는 활동이며 요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무력화함으로써 요인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 행사지역 내·외부에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말하며, 활동중점으로는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 무력화시키는 사전안전조치 차원이며 공경호 측면에서 그 세부 활동내용은 검측 및 안전확보, 경호 정·첩보활동, 출입 통제 대책강구(MD 운용, 비표운용, 주차장관리 등), 비상대책 및 안전대책 강구 등이 포함된다. 이와같은 안전대책활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탐지, 봉쇄,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방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앞에서 살펴본 국내·외 요인테러의 위기관리 사례분석 5건은 경호안전활동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의 소홀 또는 미흡으로 인한 실패로 위기를 초래한 사건들이다. 따라서 국가요인 테러 위기관리대책의 목적은 상황발생 시 및 사후 처리에 능숙한 기술성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 치밀한 예방활동으로 테러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있다. 국가요인의 암살과 테러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활동이며, 경호의 기본원칙에 의한 경호안전활동의 강화조치로 경호위해요소의 사전제거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요인테러 방지의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위기관리의 현장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요인테러의 위기관리를 위한 현장 구성원인 경호요원(선발·근접경호 및 기타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요인의 신변안전을 지켜며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써 경호안전활동의 성패가 교육훈련에 의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국내·외 요인위해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경호안전활동의 실패로 요인이 위해를 당하는 등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경호조직은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구성원들에게 강한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사전안전조치 즉, 예방경호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각종 국·내외 위해사태에 대한 분석 및 토의, 검측기법, 위기의식 및 문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과목 개발, 경호안전활동 요령, 긴급사태 발생시 즉각대응요령 및 응급조치요령에 대한 전문지식,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극복요령, 대테러활동 요령 등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강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방법으로는 개인전술인 개인기량 향상훈련도 중요하지만, 팀전술인 팀웍 향상훈련 위주의 반복 훈련이 부단히 지속되어야 하며, 이는 사전 안전조치 단계든 긴급사태 발생시 조치 단계든 단독임무 수행은 극히 희박하며 효과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되었던 모든 것들이 몸에 체질화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훈련의 강화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일반 및 긴급사태)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경호안전활동 간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특히, 현장 구성원은 긴급상황 발생시 짧은 상황판단 직후 신속한 행동조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를 생각하는 복잡한 사고의식

으로 크나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급상황 발생시 교육훈련을 통해 체질화된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위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경호기법 개발·활용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요인테러 행위는 그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 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경호환경의 변화와 점증하는 위협으로 국가요인 테러의 효율적·합리적 대응체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국가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경호기법¹⁸⁾의 개발과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호기법은 국가별 경호대상자(요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상황과 여건 및 경호환경에 따라 그 나라에 적합한 경호기법¹⁹⁾을 운용하고 있으며, 요인 경호기법의 방법과 형태는 그 수를 셀수 없을 만큼 많고, 보안상 그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경호는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경호기법에는 경호안전활동시와 긴급사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경호기법은 국가요인에 대한 빈번한 테러 시도에 대비하여 근접경호활동 보다는 예방경호 즉 사전안전활동 위주의 선발경호활동에 치중해 왔으며, 현재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사전안전활동과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는 고도의 근접경호활동을 동시에 운용하는 등 합리적인 경호기법을 운용하고 있으나, 점차 요인위해 기도자의 성향이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요인테러가 직접 위해 목적 뿐만 아니라, 권위와 명예 실추 등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주기위한 간접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행위(계란페인트, 달걀, 밀가루, 크림파이, 분말, 오물, 돌맹이투척 등)²⁰⁾ 또한 증가함에 따라 위기관리를 위한 경호장비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밀한 관찰기법 등 다양한 경호기법의 개발·활용이 요구된다.

18) 경호기법이란, 경호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로서 국내·외적인 경호환경과 위기(위협)정도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19) 이스라엘은 95년 11월 '라빈'수상이 암살 당한 후, 방탄차량 보강, 대테러요원 및 장비 보강, 엠블런스 본대수행, 최기병원 선정운용, 승하차지점 천막설치 등 경호기법의 놀라 만한 성장을 가져 왔다.

20) 김영삼 전대통령 일본 방문차 출국시 페인트계란 투척사례(99. 6),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청주서 공천불만 당원에 달걀 봉변사례('00. 3), 프랑스 조스팽총리 돌맹이 투척사례('00. 2), 캐나다 '크레티앙'총리 크림파이 피습사건('00. 2), 영국 '토니 블레이'총리 분말 피습사건('04. 5) 등 간접적 위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V. 결 론

국가위기는 “전통적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등의 위기로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 오고 있으며,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 위기의 테러리즘은 미 9·11테러사건에서 보았듯이 사회질서와 국가 통치 질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근래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국제테러조직 및 각종 위협요인의 점증으로 국가요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등 각국 지도자를 공격 대상으로 한 요인테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치명적인 테러 행위 발생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등 후유증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은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국내·외 부정적인 위협환경들로 인해 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신변안전이야 말로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주요인사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호안전활동을 통해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요인테러의 위기관리를 위한 발전 방향으로, 첫째, 요인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테러로부터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對 테러 관련 법규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보완하고 전담기구와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호관계법”과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요인의 암살과 테러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활동이며, 경호의 기본원칙에 의한 경호안전활동의 강화조치로 경호위해요소의 사전 제거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요인테러 방지의 최선의 대책이다. 셋째, 현장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일반 및 긴급사태)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경호안전활동간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넷째, 점차 요인위해 기도자의 성향이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요인테러가 직접 위해 목적 뿐만 아니라 권위와 명예 실추 등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주기위한 간접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 또한 증가함에 따라 위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경호기법을 개발·활용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요인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을 때, 국가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위협에 처해지고, 사회 혼란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지구상에서 절대적이고 완벽한 경호란 결코 가능하지 않다. 단지 절대적이고, 완벽한 경호행위를 추구하기위해 제반작용 요소들을 최대한 가동시켜 국가요인에 대한 암살 및 테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사전안전조치 즉, 예방경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각종 테러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위기관리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방부(1998). “위기관리지침”, 서울: 국방부.
- _____(2001). 『국제 테러리즘 -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서울: 멀티넷.
- 국방대학교(2001). “국제테러현황과 대테러 캠페인”, 세미나 발표논문, 안보문제연구소.
- 김태준(2002). 「북한의 테러와 테러리즘」,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 박용석(1999). “대규모 국제행사시 요인경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창석(1993). 「아웅산 리포트」, 서울: 인간사랑.
- 박형·박찬기·최진태(2002). “국제테러의 원인과 배경”,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 박휘락·김상범·남길현(2002). “국제테러 대응”,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 비상기획위원회(1996).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 비상대비교육.
- 서남열(2005). “국가위기관리의 이해”, 자치인력개발원 교수부.
- 서상열(1998). “세계 요인테러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돈(1999). “한국의 안보위기관리체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종하(2004). “요인경호 안보활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현근(역)(2002). “2001년 세계 테러리즘의 유형”,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이재은(2005). “한국의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집행구조의 다조직적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재진(2001).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요인경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철현(1999). “요인테러의 경호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영식(2002). 「지구촌시대의 국제테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한국문화사.
- 황의방·한영탁(역)(2001). 『새로운 전쟁: 빈 라덴 조직과 미래의 테러』. 서울: 도서출판 중심.
- 조선일보, 2001, 5, 4. /동양일보, 2004, 3, 17.
- Brian M. Jenkins, Terrorism : Current and Long Term Threats(Santa Monica, CA : RAND, 2001), p.4.
- Cigler, Beverly A.(1988). “Emergency Manage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Crisis Management : A Casebook, edited by Michael T. Charles

- and John Choon K. Kim. Springfield, IL : Charles C. Thomas Publisher.
- Giuffrida, Louis O.(1985). “FEMA : Its Mission, Its Partn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 2.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2000). “Global Trends 2015: A Dialogue About Future With Nongovernment Experts“. Washington: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 Paul R Pillar.(2001). Terrorism and U.S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Paul Wilkinson.(1987). Terrorism and the Liberal State, London : Macmillan.
- Simon Reeve, The New Jackals: RamZi Yousef.(2001). Osama bin Laden and Future of Terrorism.
- U.S. Department of State.(2001). “Overview of State-Sponsored Terrorism,“ in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0. Washington: DoD.
- Washington Post, 2002, 1, 11.
- Janes Intelligence Review, 2002, 1월호.
- <http://www.nis.go.kr>, 국가정보원.
- <http://www.terrorism.or.kr>, 한국 테러리즘 연구소.
- <http://www.pss.go.kr>,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about Crisis Control Analyzes and the Realities of VIP Terrorism

Suh, Sang-Yul

These days our society, no matter it is individual or community or nation it has diversity big and small trouble and Terrorism, disaster that gives national crisis in many different ways. Before we dont think disaster is big problem in nation crisis but now we have to think seriously and put the disaster problem in nation crisis. Also security terrorism is important in national crisis just same as security of nation and disaster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pecially, attacking national sovereign and the head of the government are still increasingly and if deadly terror happens than nation will get big crisis and can get aftereffect.

Accordingly way of development about crisis control in security terrorism, first of all, for make confrontation system because of crisis management, need judicial revision about escort law and prevention of terror. Second of all, need exclusion of guard danger element for strengthening guard safe action. Third of all, strengthening education to people so increase ability of conquest in the scene.

Finally, security terror not only directly purpose also indirectly purpose increase, need to development about guards way and need a strong will to reduce terrorism, also put emphasis on prevention guards action and before the fact make perfection more perfect in crisis control to removal element of terror.

Key Word: Primary leaders, VIP terrorism, Crisis, nation crisis, Crisis management